감자·쪽파·전어와 함께하는 ‘감쪽같은 보성전어축제’ 22일 개막

제17회 보성전어축제’·‘제32회 회천면민의 날’ 통합 개최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여름 바다와 향토 먹거리가 어우러진 ‘제17회 보성전어축제’와 ‘제32회 회천면민의 날’을 오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율포솔밭해수욕장 일원에서 통합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회천면민회(회장 김용장)가 주최하고 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장)가 주관하며, ‘감쪽같은 전어축제! 화합의 장!’이라는 주제로 보성의 대표 수산물인 전어와 회천면 특산물 감자, 쪽파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 지역 특산물 축제로 기획됐다.

전어축제의 백미인 전어 잡기 체험은 올해부터 안전성을 강화해 율포솔밭해수욕장 개매기장 대신 해변에 마련된 대형 풀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시원한 물속에서 살아 있는 전어를 맨손으로 잡는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으며, 잡은 전어는 현장에서 바로 구워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고, 포슬포슬한 찐 감자, 향긋한 쪽파 요리와도 함께 맛볼 수 있다.

전어 잡기 체험은 22일 오후 4시, 23일 오전 11시 두 차례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 5천 원이며, 이 중 5천 원은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환급된다.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다.

첫날인 22일은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면민 노래자랑, 전어 잡기 체험, 평양예술단 공연, 관광객 어울림 한마당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전어 잡기 체험, 관광객 어울림 한마당, 보성군립국악단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농특산물 전시·판매 부스, 감자·해물파전·옥수수·새우구이 등 먹거리 장터, 어린이 체험 부스, 전어·감자·쪽파 캐릭터 포토존 등이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보성의 9미 중 하나인 전어는 저칼로리·고단백 식품으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체중 조절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잔가시에는 우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칼슘이 함유돼 성장기 어린이와 건강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김용장 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가 휴가철 보성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장성군 “전국 동시 ‘일본뇌염’ 경보… 집중 방역 추진”

취약지역 주 2회 방역소독… 예방접종, 예방수칙 준수 중요

장성군이 일본뇌염 감염 방지를 위해 집중 방역과 유충 구제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 경련, 혼수 등 중증 뇌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이달 1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데 따라, 장성군은 감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모기 창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수구, 정화조 등 유충 서식도 빈틈 없는 방역을 시행 중이다.

예방백신 접종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는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여서, 표준접종 일정을 준수하도록 신경쓴다. 접종 일정은 장성군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방백신 접종도 병행되어야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대상이며, 해외 풍토병 지역 방문 예정자 등 고위험군 성인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유료 예방접종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접종 일정 및 의료기관 안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평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야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밝은색 긴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귀, 목, 발목 등 피부가 노출되기 쉬운 곳에는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가정 내 방충망도 뚫린 곳이 없도록 정비해 둔다.

군 관계자는 “비 온 후 기온 상승으로 모기 개체수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현장 방역을 시행 중”이라며 “해외 여행 시 모기 물림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화순군–청년협의체, 하반기 핵심 정책 구상 나서

“청년이 주도하는 도시, 청년이 기획하는 행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월 6일 청년하우스 1층 청년카페 ‘청춘오름’에서 제4기 청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청년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청년협의체 위원 9명을 비롯해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했고, ‘청년의 날 행사 기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회의에서는 ▲청년 주도의 행사 콘텐츠 구성 ▲입체적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청년협의체 위원들은 화순군이 준비 중인 ‘청년의 날’ 행사 계획을 단순히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행사명과 청년 특강 주제 선정, 프로그램 운영, 행사 홍보 방안까지 실질적인 역할을 맡아 정책 참여의 주체로 나서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위원은 “기성세대의 관점이 아닌 청년의 시각에서 기획하고 구성한 행사여야 청년의 진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 또 다른 위원은 “정책에 청년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화순군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청년의 날’ 행사 세부 프로그램 구체화와 민·관 협력 강화 등의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는 청년의 정책 참여와 실질적 주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청년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설계자·실행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장흥군, 식중독 예방 아동급식 제공업체 위생 점검

장흥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합동 위생점검 실시

장흥군은 6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제공업체 2곳(정남진뷔페, 고마교회다사랑나눔센터)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장흥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자재의 보관 상태 및 유통기한 적정 여부 ▲조리 종사자의 위생수칙 준수 ▲조리시설의 청결 유지 상태 등으로, 급식 과정 전반에 걸쳐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급식 제공기관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저탄소 유기농 영암 학이머문쌀 국가대표가 먹는다

영암군·서영암농협, 국가대표선수촌에 3년간 30톤 지원 약속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서영암농협(조합장 김원식)이, 5일 충북 진천군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학이머문쌀 후원식을 열고, 3년간 30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후원식에는 김택수 선수촌장과 선수촌 조리사 등 운영부 직원, 전라남도체육회와 영암군체육회 관계자가 함께 해 저탄소 유기농 영암쌀 지원을 반겼다.

영암군이 지원한 학이머문쌀은 전국 최대 친환경 집적화단지인 학산면의 130ha 농지에서 저탄소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다.

영암군과 서영암농협은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기초체력 등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원식에 앞서 지난달 영암군과 서영암농협은 국가대표선수촌과 함께 충청 지역 수해 주민들을 위해 학이머문쌀 1톤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바 있다.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총장은 “지난 수해 복구 기부에 이어 국가대표를 위한 후원을 약속한 영암군과 서영암농협에 깊은 감사드린다. 선수들이 더 건강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쌀이라고 다 같은 쌀이 아니더라. 학이머문쌀은 무공해 쌀이다. 정말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원식 서영암농협조합장은 “국가대표 한 선수 한 선수의 땀과 열정, 꿈을 응원하고, 영암 농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유기농쌀 지원을 결정했다. 선수 여러분이 만나는 한 그릇의 밥이 경기력의 밑거름이 되도록 좋은 쌀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이머문쌀 브랜드는 학산면 친환경 집적화단지에서 우렁이와 해충 등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학의 모습에서 착안됐다.

영암/김희선 기자

담양군,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30만 원 지급… 8월부터 시행

담양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어야 한다. 조부모의 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이를 통해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